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고유*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마닐라에 위치한 라살아라네타 대학은 유치원생들부터 대학생까지 함께 있는 학교로, 규모는 꽤 크고 시설도 그다지 낙후되지 않았다. 화장실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용하기에 큰 불편은 없었다. 마닐라 시내까지 교통은 택시를 이용했는데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시간을 넉넉히 잡고 이동해야 했다. 그래도 1시간 정도면 시내로 나갈 수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좋았다. 학교 분위기는 한적하고 좋았다. 어디를 가나 가드들이 많아서 신기했다.</p>
수업	<p>수업 내용은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으며, 방법은 생각보다 게임이나 테스트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컸다. 대그룹으로 나뉘면서 다른 학교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반에는 같은 학교 사람이 없어서 아쉬웠다. 같은 학교와의 교류를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p> <p>강사진은 정말 개개인의 차이가 크다고 느꼈다. 맨투맨 선생님 중 한 분은 전혀 의욕이 없었고, 그 때문에 그 수업을 가면 항상 혼자 책만 읽고 발음만 조금 교정하곤 했다.</p> <p>에세이 과제에 있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피드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코멘트 항목에 아무 것도 없고 문법을 고친 흔적도 없이 점수만 덩그러니 나와 있으니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과제를 한 의미를 사실 잘 모르겠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액티비티에는 민도르섬, 따가이따이(화산섬), 팍상한 폭포가 있었는데 민도르섬은 학교 측에서 지원을 해 주었고 2박3일간 갔는데 여유롭게 2000페소 정도만 챙겨서 가서 즐겁게 놀았다.</p> <p>따가이따이는 1700페소를 냈고, 차를 2시간 정도 타고 가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다. 거기서 말을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갔다. 따로 추가비용은</p>

	<p>없었다.</p> <p>팍상한 폭포는 2000페소의 비용이었는데 참가하지 않았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건기에 가서 많이 습하지는 않았고, 30도 전반의 날씨였는데 한국날씨로 치자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딱 그 정도의 부담스럽지 않은 날씨였다. 좋았다.
안전	생각보다 너무 안전했고, 다만 소지품은 진짜 조심하 잘 챙겨야 할 듯 하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숙소는 신 기숙사라 구관에 비해 따뜻한 물이 잘 나왔고, 오전에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청결했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한식으로 나와서 너무 좋았고, 한국 조리사 선생님께서 맛있게 만들어주 셴다.
교통	교통체증이 심했지만 그래도 마닐라에 있어서 시내로 가는 교통이 용이 했다. 택시를 주로 이용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액티비티	42,500	따가이따이 총 경비
기념품 및 선물	50,000	과자 및 선물
평소 용돈	200,000	개인적으로 간식이나 필요한 물품 등에 사용한 용돈

교통비	25,000	주말에 개인적으로 여행 시에 사용한 택시비 및 이동경비
합계	1,016,5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다닌다고 해서 정말 옷을 거의 안 챙겨 갔는데 여자들은 생각 보다는 꾸미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놀러 갔을 때 입을 만 한 옷을 챙겨도 좋고 수영복도 챙긴다면 정말 유용할 듯합니다. 그리고 근처 여행지를 많이 알아보고 와서 가 보고 싶은 곳에 주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알차게 여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어플(우버, 그랩)은 와서 깔아도 괜찮고, 노트북은 발표이외에는 딱히 쓰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건기이기도 하고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추우니 꼭 긴 팔의 적당한 얇은 외투는 꼭 챙기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솔직히 4주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막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목표를 "영어를 말하는 데 두려움을 없애자"로 설정하고 간 어학연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영어로 대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최대한 알아듣고 '내 생각을 어떻게 잘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더 했습니다. 적응 하는데 1주일, 마지막 주도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사실 너무 아쉬웠지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도 하면서 놀기도 한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게 기억이 됩니다.

한국에 와서는 그 감을 잃지 않도록 계속 영어 공부를 할 것이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회화를 중점으로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민도르섬에 가서 친한 순천향대 사람들과 찍은 사진</p>	<p>처음 주말에 놀러 나간 마카티의 베니스 플라자 풍경</p>
	
<p>마닐라 투어 코스인 리잘파크</p>	<p>마닐라 투어 코스인 인트라무로스에서 대그룹 사람들과 함께 찍은 컨셉사진</p>
	
<p>몰 오브 아시아에서 본 선셋</p>	<p>따가이따이에서 말 타는 모습</p>